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에코바스 일체형 LED조명 욕실 천장재 '카멜레온'**

# 음악 틀고 조명 컬러 바꾸고 ... '힐링'주는 욕실 천장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 화장실 조명을 은은한 색상으로 바꿔놓고 샤워해야겠다. 울적함을 달래 줄 발라드 음악도 함께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실 분위기를 바꾼 뒤 목욕하면 기분전환이 될 것 같다.’

친환경 전자제품에 에코바스의 일체형 LED(발광다이오드)조명 욕실 천장재인 ‘카멜레온’을 설치한 소비자의 후기도. 리모컨으로 LED조명 밝기를 조절하고 색상까지 바꿀 수 있어 카멜레온이란 이름이 붙었다. 천장 시공 시 스피커를 내장하면 스마트폰 블루투스도 연결해 샤워할 때 음악감상도 할 수 있다.

◆20분 만에 시공 - 고품질 역대 카멜레온은 동 형태의 기존 욕실 천장재에 LED조명을 내장했다. 조명을 별도로 달 필요가 없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력 소모량도 적다. 고품질 대표는 “LED조명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지만 습기에 약해 욕실엔 잘 안 쓰였다”며 “천장재에 매립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조명 색상은 빨강 녹색 파랑 퍼플 등 12가지로 변경할 수 있다. 조명 밝기도 조절이 가능해 욕실을 감성적인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다.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ABS(충격과 열에 강한 합성수지) 소재로 제작해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 곰팡이가 슬더라도 천장을 향해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 금방 닦인다. 물소리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음재를 부착했다. 보온 효과가 있어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며, 천장에서 음이온을 발산하는 등 건강 기능도 갖췄다.

곽 대표는 “100㎡(약 30평형) 대 가정의 욕실 천장이 40만~45만원”이라며 “시공까지 직접 하는데 20분 걸린다”고 말했다. 전국에 대리점 16곳을 두고 있다. 신동아 대림 등 일부 아파트의 욕실 천장 공사를 맡았다. 2년간 사후서비스(AS)도 해준다.

◆동형 욕실 천장재로 특허 에코바스는 중견기업 제품 개발실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곽 대표가 2009년 창업한 전자제품 업체다. 그는 “연구개발(R&D)을 오래 하다 보니 내 손으로 신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본격적인 개발엔 2년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욕실 천장재를 선보여왔다. 금형 업체를 인수해 36개 금형을 확보하는 등 소비자 요구에 맞춰 천장을 제작할 능력도 갖췄다. 곽 대표



곽원택 에코바스 대표가 동 형태의 친환경 욕실 천장재를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조명 별도설치 불필요 천장재에 LED 매립해 습기에 취약한 문제 해결 천장서 음이온 발산

다양한 입체 디자인 가능 ·호주·이란 등 수출 확대

는 “기존 평면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체 구조의 동형 천장을 제작하기 때문에 욕실 분위기를 넓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 (art@hankyung.com)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이어나-휴대용무선믹서 (031)281-0969 △이슈-덴트리거포차약(053)584-3320 △에코바스-카멜레온LED조명 (041)589-0306 △아이에스테크놀로지-스마트원격물관리통합솔루션 (032)850-2600

◆신제품 개발과 수출에 주력 집이 넓어 보여 높은 연령층에 인기가 높은 ‘이글’, 깔끔한 느낌을 줘 욕실 외에 다용도실과 복도에도 시공되는 ‘스안’, 30~40대가 주로 선호하는 ‘알바트로스’, 동그란 모양이 특징인 ‘조나단’, 스마트폰과 연동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뮤직바스’ 등 제품 종류가 다양하다. 곽 대표는 올해 약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몽골, 호주, 이란, 체코,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기능성을 갖춰 해외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천안=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 36가지 컬러 ‘프러스펜’ 모나미, 중국을 홀렸다



한자체 어울리는 수성펜 특유의 색감·표현력 인기

문구업체 모나미(대표 송하경·사진)가 수성펜 ‘프러스펜’을 주력 상품으로 중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 특화 제품을 개발하고 대형 문구 프랜차이즈에 입점하는 등 영업망을 넓히고 있다. 모나미 관계자는 21일 “프러스펜 제품 색상을 국내에선 판매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30가지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하반기 중국 대형 문구체인 ‘이우이시’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나미는 수성펜 프러스펜을 대표 상품으로 정하고 중국에서 지금까지 총 36가지 색상의 제품을 선보였다. ‘크롬오렌지’, ‘올리브그린’ 등 국내에선 볼 수 없는 색상이었다. 1970년 개발된 이 제품은 국내에선 검정 빨강 파랑 등 다섯 가지만 출시됐다.

현지 특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프러스펜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붉은 계열 색상이 일곱 가지나 된다. ‘코랄’, ‘퓨어핑크’ 등으로 세분화했다. 푸른색도 다섯 가지다. 중국 시장에서 프러스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보다 더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개발했다는 게 모나미의 설명이다.

프러스펜은 중국 매출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모나미 중국 법인 매출은 34억원에 달하는 프러스펜을 팔았다. 중국 전체 매출 52억원의 65%다. 프러스펜의 인기에 힘입어 같은 기간 중국 매출도 1.5배 증가했다.



이지사 onehthing@hankyung.com

# 코나아이, 두레생협 전용 카드 발행

코나아이(대표 조정일·사진)는 두레생협연합회와 개발 협력 플랫폼 ‘코나머니’를 두레생협에 속한 각 지역 매장 온라인 매장 모두에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두레생협에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인 코나머니를 제공한다. 두레생협은 코나머니 플랫폼을 이용해 코나머니 두레생협카드(가칭)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두레생협 회원은 스마트폰에 코나머니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두레생협이 발행한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두레생협과 코나아이는 코나머니를 사용해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나아이는 “다양한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이용 계약을 맺어 올해 약 20만개 가맹점이 코나머니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손오공·골든블루·엘아이에스, 매출 1000억 돌파

매출 1000억 벤처 14곳 늘어 474개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이 474개 늘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들 ‘벤처1000억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8.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따라 1회 이상 확인받은 기업) 8만 2000여곳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474곳으로 늘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때 두 자릿수이던 증가세는 다소 둔화

했지만 전년(2014년 1.5% 증가)보다 증가폭이 늘어났다.

새로 매출 1000억원에 가입한 기업은 위스키 제조업체 골든블루와 어린이 완구업체 손오공, 레저 응용기기 제조업체 엘아이에스, 원더브라를 유통하는 엔코르

셋 등 55곳이다. ‘벤처1000억기업’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474곳의 매출은 모두 101조원으로, 대기업군으로 따지면 재계사열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은 2014년 2151억원에서 지난해 2129억원으로 1.0% 감소했다.

하지만 평균 영업이익은 145억원에서 160억원으로 10.3% 증가했고, 고용인력은 지난해 17만 9172명에서 2014년(17만3420명)보다 3.3% 늘었다.

‘벤처1000억기업’의 평균 업력은 23.4년이었고 창업 후 매출 1000억원 달성에 걸린 기간은 평균 17.4년으로 조사됐다.

창업 7년 안에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은 캐주얼 소설키

임을 개발한 더블유제임즈를 비롯해 화장품 제조업체 엘엔피코스메틱·카버코리아 등 7곳이었다.

‘벤처1000억기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창업 초기 이뤄진 벤처투자자와 연구개발(R&D) 투자,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기술력 확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이 꼽혔다. 중기청은 특히 창업 이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200곳이고, 이 가운데 57.4%는 창업 7년 안에 투자받아 초기 성장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벤처1000억기업’은 일반 벤처기업(4.2)의 10배인 평균 43.5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주요 성장동력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안재광기자 ahnj@hankyung.com

# 할랄시장 수출상담회 22일까지 서울 SETEC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까지 서울 대치동 SETEC에서 23개국 140여 명의 바이어와 500여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2016 대한민국 할랄 수출상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두바이의 한국제품 유통 업체 1004마트 등 각국 바이어가 참여해 국내 기업 관계자를 만난다.

# ‘카붓아 휴가가자’ 이벤트

완구전문기업 손오공이 ‘카붓아 휴가가자’ 이벤트를 연다. 응모 방법은 카붓과 함께 보내는 휴가 사진이나 동영상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톡에 업로드한 뒤 댓글로 링크를 달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 100만개 판매! 3분완성 머리감는 샴푸염색 신제품 출시!

# 샴푸염색 2개월 체험분을 드립니다!

**총 15박스 (2년~3년 사용분)**

**혼자하는 즉석염색**

1회염색 1,000원

**3분이면 끝나는 기적 같은 염색을 체험하세요!**

머리감는 샴푸식 염색약이 출시되어 100만개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광덕신약이 3분이면 깔끔하게 염색이 되는 율컬러 샴푸식 염색약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향나무, 알로에, 국화, 로즈마리 등 7가지 자연 추출물 80% 이상 함유

한 순한 성분으로 감미로운 향기를 풍긴다. 인체에 유해한 암모니아를 없애고 염색약 특유의 역한 냄새와 머리가 빠지는 문제를 최소화 하였다.

**찰랑찰랑 윤기 나는 한번염색 한 달까지!**

1회용 파우치를 샴푸하듯이 손에 짜서 머리에 축축 문질러주고 바로 헹구어 주는 방식으로 머리만 염색이 되며

**본품 10Box 40회분**

부러염색 OK!  
새치염색 OK!  
전체염색 OK!  
백모염색 OK!

색상선정 : 검정색, 진한갈색, 자연갈색  
(색상선정 및 염색 시 염색약 별도 구매)

**총 15Box 60회 사용 (사은품+무료체험분포함)**  
1,200원(대용량) (2년~3년 사용분)

본품+사은품 → 59,800원  
\*신용카드 3회 무이자

**2개월 무료체험 안내**

주문하시면 (2~3개월) 체험분 1박스를 같이 드립니다. 구입 후 2개월 이내 체험분 불만족시 본품과 사은품만 반송하시면 됩니다.

**할인행사 추가 사은품**

사은품 4Box 16회분

**너무쉬운 염색방법**

- 1회용용 손에 찐다
- 머리에 골고루 샴푸하듯 거품을 낸다
- 3분 후 물로 헹구면 염색 끝!

**1회 염색으로 한달까지 인기열풍!**

제조원 : 광덕신약 공급원 : 대양라이프

주문전화 : **1544-0563**

www.대양라이프.kr

농협 : 725-02-167624 예금주 : 송옥화

**윗, 알러지, 피부트러블, 눈 따가움 걱정 끝!**

**윗 타지 않는 10분 "감 허브컬러염색"**

윗이 전혀 타지 않는 10분 염색

감 허브컬러 염색약은 윗이 전혀 타지 않으면서 가장 빨리 염색이 되는 제품으로 처음 출시되었다. 남성기준 40회를 염색 할 수 있는 대 용량이다.

**1회 염색 한달까지 10분 스피드 염색!**

**Dfre**

▲ 짧은머리 기준 40회 염색 (용량 1,400g)

판매가격 : 69,800원

윗타지는본은 반드시 본 제품을 주문하십시오. 침 후습니다^^

\*신용카드 3회 무이자 \*비트코인 대우코리아(주)